

박보영 “1인 2역... 내 인생 최고의 기회”

생기 넘치고 발랄한 성격의 동생 유미지, 꼭 찰는 게 어릴 적부터 습관인 모범생 언니 유미래. 생긴 게 똑 닮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지만, 겉모습 빼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다.

tvN 새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1인 2역을 맡은 배우 박보영은 21일 서울 CGV 영등포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제 인생에 다시 없을 도전이자 기회라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연기가 훨씬 어려웠다”며 “동시에 두 작품을 따로 찍은 기분”이라고 웃음을 터뜨렸다.

24일 처음 방송되는 ‘미지의 서울’은 열골 빼고 모든 게 다른 쌍둥이 자매가 인생을 맞바꾸는 거짓말로 진짜 사랑과 인생을 찾아가는 성장기를 그린다.

동생 유미지는 육상 유망주로 이름을 날렸지만, 현재는 운동을 그만두고 고향에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있다. 언니 유미래는 학창 시절부터 쪽 엘리트의 길을 걸어와 서울 공기업에 제직 중인 완벽주의자다.

언니가 서울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유미지는 몇 달만이라도 인생을 바꿔 살아 보자고 제안하고, 그렇게 유미래는 고향 두손리에서, 유미지는 홀로 서울에서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가기 시작한다.

박보영은 “미래는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라서 겉으로 차가운 분위기를 잘 보이려고 했다”며 “특히 두 자매가 서로인 척할 때를 균형감 있게 묘사하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tvN 새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배우 박보영이 열골 빼고 모든 게 다른 쌍둥이 자매역을 맡아 진짜 사랑과 인생을 찾아가는 젊은 날의 여정을 연기했다. 타방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 주연 인생 바꾼 쌍둥이 자매 성장기

박신우 감독 “기본에 충실한 오랜만에 보는 전통 드라마”

박보영은 극 중에서 배우 박진영·류경수와 각각 로맨스 호흡을 맞추기도 한다.

박보영은 “진영씨가 연기한 이호수는 비가 오면 한쪽 어깨가 다 젖더라도 제게 우산을 씌워 줄 것 같은 캐릭터이고, 경수씨가 연기한 한세진은 우산을 버리고 같이 물웅덩이에서 놀자고 할 것 같은 친구”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저와 호흡을 맞추는 두 캐릭터가 워낙 매력이 달라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것 같다. 현장에서도 스태프들 사이에서 ‘미지·호수’ 과와 ‘미래·세진’ 과가 나누었다”고 전했다.

환절점 외모에 무심한 듯 여유로운 태도를 갖춘 대형 로펌 변호사 이호수를 연기한 박진영은 “겉으로는 잘나가는 변호사 같지만, 본인만의 트라우마를 갖고 고군분투하는 백조 같은 캐릭터”라고 맡은 배역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 미래인 척하는 미지를 만나 성장하면서 상처를 점차 극복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류경수는 “한세진은 수다스럽고 장난스럽고 발난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이 그의 깊은 상실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했다”며 “이전 장르물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결의 연기를 보여드리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드라마는 ‘사이코지만 괜찮아’와 ‘질투의 화신’을 만든 박신우 감독과 드라마 ‘오월의 청춘’의 이강 작가가 의기투합해 만들었다.

박 감독은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최대한 그 글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연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솔직하면서, 욕심 없고, 꾸밈없는 담백한 대본을 참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오랜만에 보는 전통적인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세련되지는 않더라도, 기본에 충실한 드라마입니다. 마음 편하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박신우 감독)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25일 잠수교에서 그룹 세븐틴의 데뷔 10주년 및 정규 5집 앨범 기념 공연 ‘B-DAY PARTY: BURST STAGE@잠수교’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세븐틴 데뷔 10주년 기념 이번 일요일 잠수교서 ‘생파’

한강 다리 첫 K팝 공연 대형 팝업스토어 운영

서울 한강 다리 위에서 처음으로 K팝 공연이 열린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25일 잠수교에서 그룹 세븐틴의 데뷔 10주년 및 정규 5집 앨범 기념 공연 ‘B-DAY PARTY: BURST STAGE@잠수교’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가 서초구, 하이브와 협력해 마련한 이번 공연은 25일 오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잠수교 무대 관람석 6000석과 반포한강공원 내에 마련된 중계석에서 즐길 수 있다.

잠수교 무대 관람석 예매는 16일과 19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했다. 반포한강공원 발광다이오드(LED) 중계석은 예빛존(900명)·스탠딩존(8850명)·피크닉존(1만4834명) 총 3곳으로 배치됐으며 별도 예매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본 공연 외에도 23~25일 세빛섬과 잠수교 일대에서 세븐틴의 10주년을 축하하는 대형 팝업스토어가 운영된다. 사흘간 국내외 팬 등 총 1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서울시는 안전한 공연 진행과 시민·팬들의 편의를 위해 25일 오전 7시부터 26일 오전 4시까지 잠수교 일대 차량·이륜차 등의 통행을 금지한다. 통제 구간은 잠수교 북단(용산구 서빙고동 180-7)~남단(회전교차로 앞) 총 1.1km 구간이다. 25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공연 무대 설치 등을 위해 보행자와 자전

거를 포함한 모든 인원차량의 잠수교 진입을 통제한다.

시는 카카오톡 앱 주요 내비게이션과 도로전광표지(VMS) 및 교통방송을 통해 통제 구간을 안내할 계획이다.

잠수교를 지나는 노선버스(405번·740번)는 반포대교로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방문을 원하는 승객에게는 기존 정류소 대신 도보 8분 거리의 대체 정류소에서 승·하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차량과 보행자 통제 관련 사전 안내물은 행사 7일 전부터 잠수교 남단과 북단 곳곳에 배치한다.

공연 당일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만큼 행사장 안전관리에도 주력한다. 사전에 서울시 유관부서·관할 자치구·경찰·소방 등과 여러 차례 안전점검 회의를 했으며 공연 당일 현장 점검도 벌인다.

잠수교 무대 관람석은 100% 사전예약이므로 제한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고, 반포한강공원 내 중계석은 전 구역 안전펜스와 라바콘을 설치해 체류 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고속터미널역부터 이동로를 거쳐 행사장 전체에 약 800명의 안전 인력을 배치하며, 서초·용산 인근 6개 응급센터와 핫라인을 구축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이송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번 공연은 전 세계 팬들에게 한강과 잠수교의 매력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잠수교를 찾는 분들이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디즈니 ‘릴로&스티치’, ‘야당’ 제치고 2위로 출발



2002년 동명 애니메이션 원작 CGV 골든에그지수 96% 기록

디즈니 영화 ‘릴로&스티치’가 황병국 감독의 ‘야당’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했다. 22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디 플레이어-캠프 감독의 ‘릴로&스티치’는 개봉일인 전날 1만8000여 명 (매출액 점유율 11.3%)이 관람해 박스

오피스 2위로 진입했다. 2002년 개봉한 동명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우주에서 온 외계 악동 스티치가 하와이에 불시착해 외로운 소녀 릴로(마이아 케알로하 분)와 함께 살며 겪는 일을 그린다.

실제 관람객의 평가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는 CGV 골든에그지수에서 96%를 기록하는 등 대체로 호평을 얻고 있다. 디즈니 인기 캐릭터인 스티치를 실감 나게 구현한 점, 유쾌함과 감동이 적절히 조화

된 스토리가 좋은 평가를 받는 분위기다. ‘릴로&스티치’의 개봉에도 톰 크루즈 주연의 액션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1위 자리를 지켰다.

다만 관객 수는 9만6000여 명(61.2%)으로 개봉 후 처음으로 평일 관객이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올해 나온 한국 영화 중 최고 흥행작인 ‘야당’은 3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1만2000여 명(7.6%)을 더해 누적 관객은 324만여 명으로 늘었다

대동택견 선수자 과정 1기 모집 안내

1. 택견 어원

택견의 어원은 태갈이다. (태)는 ‘태어나다·중생하다’는 뜻이고, (갈)은 ‘가르치다·수련하다’는 뜻으로 이를 합치면 ‘인간에서 신으로 중생하는 수련’을 말한다. 씨름이 오랜 세월 동안 씨갈 → 씨겨름 → 씨겨름 → 씨름으로의 용어 변천사가 있었듯이 택견도 태갈 → 태가를 → 태겨름 → 태견(태견) → 택견으로의 용어 변천사가 있었다.

2. 대동택견 소개

- 태고사에 나오는 천제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하도록 준 천부인(天符印) 원리에 입각한 고유 무예(위대 택견 기능)
- 무예 역사와 전승 계보(삼성조 시대 - 북부여 - 삼국시대 - 일본 천황가 전래 - 신라삼랑 원의광(대동 택견 중시조) - 원정의(35대) - 덕암 최홍술(36대) 환기분주 - 한풀 김정윤(37대)) 명확한 전통 무예
- 한민족 정서에 녹아드는 우아하고 수려한 몸짓과 가장 방대하고 강력한 기술 체계를 갖춘 완전 무예(아래대 택견 기능)

3. 선수자 과정 개설 목적

- 단군 임검의 세상을 널리 아홉째 하라는 홍익인간 이념 실천
- 삼성조 시대부터 7세기까지 수련한 전통 태갈 수련법(위대 택견) 전수- 단군 임검 탄생역사에 나오는 환웅(桓雄)·웅녀(熊女)·신단수(神檀樹)·호(虎)·웅(熊)·애(艾)·신(森)·굴(窟)·백일(百日)은 인간이 신으로 중생하는 태갈 수련법이나 후대에 한자로 기록되면서 인수(人獸)의 역사로 왜곡됨
- 조선시대 송문천무(宋文殿) 정책과 일제의 민족혼 말살 정책으로 사라진 택견의 맨몸 기술 보강과 무기술 복원(아래대 택견)

4. 선수자 과정 모집 일정

- 주 최: 대동택견협회(협회장 신성준)·명지대 명상무예학과(우종웅 교수)
- 장 소: 명지대학교 미래관 6층
- 일 자: 2025.3.29.~6.14(12주) 매주 토요일 09:00~12:50
- 인 원: 선착순 10명
- 대 상: 체력훈련(힘)이 아닌 무예기법(기운) 원리를 익히는 수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 등 록: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 미래교육원 → 등록안내 → 전문교육과정 → 신규학습자 (원서접수 바로가기)
- 문 의: (02) 300-1816

